

# 자고나면 뛰는 기름값…44일 연속 상승

광주 1967.58원…ℓ 당 61.18원 올라

전남 1966.97원…당분간 더 오를듯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44일째 상승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광주 동구지역의 평균 가격은 ℓ 당 1900원을 기록, 2000원에 바짝 다가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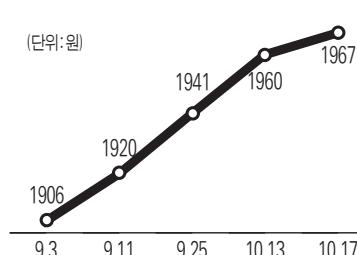
17일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제품 가격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 당 1967.58원으로, 지난달 3일(1906.40원) 이후

44일 연속 가격이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 휘발유값은 ℓ 당 61.18원 치솟았다. 자동차용 경유도 42일째 올라 ℓ 당 1760.26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동구가 ℓ 당 1990원으로 가장 비쌌고, 북구 1970원, 서구 1967원, 광산구 1964원, 남구 1959원 순이었다.

북구 일부 주유소는 ℓ 당 2045원을

## ■ 광주 ℓ 당 휘발유값 상승 추이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또 상당수 주유소들이 1999년에 거래하고 있어 조만간 2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도 ℓ 당 1966.97원을 기록, 42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휘발유값이 급등하면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거래업소도 늘고 있다. 광주에서 적발된 불법거래업소는 총 4건으로 모두 지난달 말 이후 적발됐다. 전남은 6곳에 달했다.

이같은 휘발유값 상승세는 국제유가 상승보다는 환율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 때 국제유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주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일 배럴당 127.85달러까지 올라가는 등 지난달 내내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다가 9월말부터 배럴당 110달러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9월 말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유가 인하 분을 상쇄한 것은 물론 국내 기름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환율이 서서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다시 국제유가 오르고 있어 국내 휘발유값은 한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121.02달러) 배럴당 120달러에 다시 진입한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ℓ 당 23.8원 오른 972.8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공급가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9월 어음부도율 0.2%P 하락

### 광주·전남 0.39%

9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1년 9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을 조사한 결과 9월 중 어음부도율이 0.39%로 전달보다 0.20%P 내려갔다.

지역별로 광주지역(0.97→0.73%)이 0.24%P, 전남지역(0.17%→0.07%)이 0.10%P 각각 하락했다.

부도금액은 98억5000만원으로 전달(156억8000만원)보다 58억3000만원 감소했고 부도부채 수는 6개로 전달과 같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8억8000만원), 서비스업(-24억7000만원), 건설업(-14억5000만원) 등 전산업이 감소했다.

2011년 9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신설법인 수는 319개로 전달(303개)보다 16개 증가했고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79.8배로 전달의 50.5배보다 상승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왼쪽 여섯번째)과 하나은행 김정태 은행장(왼쪽 네번째)이 17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조직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은행 협약 체결식을 가진 후 관계자들과 축하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순천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 '광주·하나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정원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으로 광주은행과 하나은행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과 하나은행은 박람회 입장권 판매 우선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정원박람회 휘장 독점 사용권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정원박람회 공식후원사 및 공식후원은행 명칭 사용권, 정원박람회 오프라인 판매 및 수익금 관리권을 가지게 됐다.

광주은행은 2007년부터 공익형 금융상품인 '순천만사랑통장'을 발매해 판매액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총 1억100만원의 순천만사랑통장 후원금을 순천시에 기부한 바 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은행은 2007년부터 공익형 금융상품인 '순천만사랑통장'을 발매해 판매액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총 1억100만원의 순천만사랑통장 후원금을 순천시에 기부한 바 있다. /최재호기자 lion@

## 81세 이상도 여행자보험 가입

### 2천원만 더내면 여행중 발생 의료비 보장

81세 이상 노인도 약 2천원만 더 내면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1~100세 고령자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요율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외여행보험료에 2000원 악화(1주일 여행, 입원비 2백만원 기준)를 추가로 내면 여행 중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그동안 여행자보험은 실손의료비 체계가 80세까지만 있어 81세 이상은 여행 중 사망, 사고·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년층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령자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1201조5000억원의 12.04%인 144조 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사(867개)의 내부거래비중은 22.59%로 상장사(216개) 8.82%보다 13.77%포인트 높았으며, 총수 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이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 9.18%)보다 3.30% 포인트 높았다.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STX(23.49%), 현대자동차(21.05%), OCI(20.94%) 등으로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내부거래였다. 반면에 현대(1.72%), 미래에셋(1.92%), 한진(3.56%) 등은 내부거래비중이 적었다.

/연합뉴스

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1201조5000억원의 12.04%인 144조 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사(867개)의 내부거래비중은 22.59%로 상장사(216개) 8.82%

보다 13.77%포인트 높았으며, 총수

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이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 9.18%)보다 3.30% 포인트 높았다.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STX(23.49%), 현대자동차(21.05%), OCI(20.94%) 등으로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내부거래였다. 반면에

현대(1.72%), 미래에셋(1.92%),

한진(3.56%) 등은 내부거래비중이

적었다.

/연합뉴스

### 여성 일하기 좋은 기업 '삼성전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유한킴벌리 등이 꼽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전국 여성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7.8%가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7.0%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은행(6.2%), 한국전력공사(5.0%), 아시아나항공(4.

/연합뉴스

6%), 포스코(4.6%), 대한항공(3.4%), 신세계(3.4%), CJ제일제당(3.4%), KT(3.0%)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꼽은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25.6%)이라고 답했고, 유한킴벌리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많기 때문'(31.4%)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中企 '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호남연수원(원장 이근복)은 17일 중소기업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5기 CEO 명품 아카데미'를 마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CEO의 실무 능력을 제고를 위한 실전경영 과정과 신규로 사장(CEO) 학과장을 개설한다. 교육인원은 각 과정별 50명씩 100명이다.

실전경영 과정은 재무, 인사, 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정부 지원정책, 명사 초청특강 등으로 구성되며, 사장

학 과정은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갈등관리 등), CEO핵심역량(의사결정, 협상, 스피치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일정은 오는 29일 개강해 내년 2월 18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7시간(오전 9시~오후 5시)씩 총 10회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시 북구 장동동 중소기업호남연수원이다.

교육비는 100만원으로, 수료하면 50만원을 환급해준다.

문의 062-250-303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KCC 대졸 신입사원 150명 공채

KCC는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15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관리, 생산, 연구개발(R&D), 영업 등이며 지원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원) 졸업 또는 2010년 졸업 예정자로 평점 3.0점 이상(4.5점 만점), 영어 말하기를 포함한 어학 성적 보유자이다.

채용 홈페이지(<http://www.kcc-world.co.kr>)를 통해 이날부터 31일 까지 인터넷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65.18 (+29.78)

### 코스닥지수

485.38 (+11.49)

### 금리 (국고채 3년)

3.46% (+0.05)

### 원·달러 환율

1,140.50원 (-15.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144조원

### 공정위, 43개 기업 1083개 계열사 거래내역 첫 공개

### STX·현대차·OCI 20%이상 차지…동반성장 먼길

국내 4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정도이나 비상장사가 상장사보다, 총수 있는 집단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17일 분석됐다.

또 총수일가나 계열사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높았으며 업종 중에 SI(시스템통합관리), 부동산, 도매, 광고 등이 높았다.

대기업 집단중에서 STX, 현대자동

차, OCI 등의 내부거래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해 높았으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5대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액 합계가 전체의 70%(103조원)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4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1083개사의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처음으로